



엑시무스 시리즈에 걸맞는 주목기 DP1 등장

글/이종학 (Johnny Lee)

스텔로의 세계적인 성공에 힘입어, 향후 에이프릴에서 엑시무스 시리즈를 제대로 런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 엑시무스 라인엔 전세계 하이엔드 메이커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구현할 제품으로 구성되리라 전망되었으며, 이미 프리와 파워 앰프를 활발하게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구체적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DP1이라는 모델을 들고 나와 깜짝 놀랐다. 사실 여태 엑시무스 라인으로 나온 것은 딱 두 종이다. 바로 CD 10과 레퍼런스 CD 플레이어. 그리고 보면 모두 CDP라는 공통점이 있는 바, 이번 제품은 DAC를 중심으로 한 프리앰프라는 점에서 성격이 좀 다르다. 참고로 나는

CD 10의 외관이나 음이 너무 좋아, 발매 당시 상당히 고무되었던 기억이 난다. 몇몇 하이엔드 제품들과 겨워서 이긴 장면도 목격할 바 있으므로, 에이프릴에 대해 각별히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엑시무스 라인 전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DP1은, 이제는 전설로까지 승화된 엑시무스 시

릿을 처음으로 소개할까 하다가 192KHz/24bit라는 스펙에 주목하게 되었다. 물론 이 스펙이 갖는 장점이나 잠재력을 모르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튜디오가 이 절반에 해당하는 스펙으로 녹음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말하자면 차세대나 통용될 포맷을 미리 공개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이는 대단한 미덕으로 작용한다. 물론 그만큼 많은 정보량을 보장하며, 특히 고음질 파일을 소유한 분들에게 더 없는 호재로 다가온다.

여기서 잠시 본 기의 성격을 짚고 넘어가겠다. 에이프릴의 홈 페이지에 가면 본 기 앞에 다음과 같은 수식어가 붙는다. "DAC, 프리, 헤드폰 앰프." 이 말은 즉 하이엔드 오디오, 피씨 파이, 헤드파이 등을 모두 아우른다는 이야기가 된다. 크게는 엄청난 고가의 시스템을 갖추고 진지하게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는 노트북 옆에 놓고 헤드폰으로 즐기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망라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본 기는 훌륭하게 극복해냈다. 한번 사두면 두고 두고 쓰임새가 많은 물건인 것이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본 기의 디자인은 처음에 확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두고두고 뇌리에 남을 만큼 심플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참 대단한 실력이다. 탄복했는데 알고 보니 알렉스 라스무센의 작품이다. 그는 A-렉스를 주재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이미 에어, VTL, 플레이백 등을 담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1억, 2억짜리 앰프를 만드는 콘스텔레이션이 그의 고객이다. 그러면 그렇지.

우선 본 기의 다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이를 설명하려면 책 한 권 분량이 모자랄 지경이라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미안할 지경이다. 우선 DAC부를 보면, 어떤 신호든 192KHz/24Bit 급으로 업샘플링하는 기능이 눈에 띈다. 이는 단순한 업샘플링이 아니다. 44.1KHz의 신호라면 88.2, 176.4 등으로 또 48KHz는 96, 192 등으로 정배수 업샘플링된다. 이는 입력되는 어떤 형태의 디지털 신호 모두에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컨버터부에는 TI의 PCM 1794 칩이 듀얼 모드 방식으로 투입되었고, 업샘플링은 역시 TI의 SRC 4192 칩이 해결하고 있다. 워낙 정평이 나 있는 부품들이라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피씨 파이 유저들에게 아무래도 USB

DETAILS

DIGITAL INPUT : 1 USB 2.0, 1 I2S 100 Ohms TTL Level, 2 COAX 75 Ohms, 1 AES/EBU 110 Ohms, 1 OPT

USB 2.0 PC OS: Windows OS with Driver, MAC OSX

입력 샘플 주파수: USB 2.0, I2S, DIR(AES/EBU, COAX, OPT)/최대 192kHz/전면 LED 자동 표시/- 호박색 : 44.1kHz/48kHz/- 빨간색 : 88.2kHz/96kHz/- 녹색 : 176.4kHz/192kHz

UPSAMPLE : TI SRC4192/전면 선택 스위치/- 녹색 : 192kHz/- 빨간색 : 96kHz/- 꺼짐 : 바이패스

DAC: TI PCM1794A x 2 (Dual Mono) 192kHz/24Bit

DYNAMIC RANGE: 132dB TYPICAL

THD+N : 0.0004%

FREQUENCY RESPONSE : 2Hz to 95kHz -3dB

ANALOG INPUT: 1 RCA, 1 MINI JACK/최대 허용 입력 4.6Vrms/입력 임피던스 1 MOhms

ANALOG OUTPUT: 1 RCA, 1 XLR, 1 HEADPHONE

OUTPUT SIGNAL LEVEL: RCA : 3.0 Vrms@0dBFS XLR : 3.0 Vrms@0dBFS each pin

OUTPUT IMPEDANCE : 75 Ohms

HEADPHONE: 1/4" HEADPHONE JACK/전면 필터 선택 스위치/- LED 꺼짐 : 필터 OFF/- 빨간색 : 필터 ON

LINE VOLTAGE : 100-117 VAC/220-240 VAC 50-60Hz

FUSE TYPE : 2A T2A 250V 지연형 20 x 5mm 유리관

POWER CONSUMPTION: 16Watts (최대 25Watts)

DIMENSION : 208 x 62 x 291mm

WEIGHT: 3.6 kg (NET)

국내제작사: 에이프릴뮤직

TELEPHONE: 02-3446-5561

WEBSITE: www.aprilmusic.co.kr

입력단이 공급할 것이다. 이것 역시 현재 최고라 인정받는 X-MOS사의 X-Core를 동원한 바, 32비트/500 MIPS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스펙을 자랑한다. 아무튼 USB 2.0에는 최상의 성능이 보장된다고 보면 무방하리라.

한편 프리앰프부를 보면, DAC부와 완벽히 격리된 구조를 취하면서 엑시무스 라인에 걸맞는 성능을 자랑한다. 이번 시청에서 재미삼아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프리앰프와 비교한 바 있는데, 테스트 자체가 무의미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엑시무스 라인으로 본격적인 프리앰프를 구상하다가 요즘 시대에 맞게 다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 아닐로고단을 통해 구현되는 음에는 본격과 하이엔드 제품들이 갖는 장점이 골고루 스며들어 있다. 하이 스피드, 풍부한 다이내믹스, 투명함, 음장감... 뭐 하나 트집잡을 일이 없다. 오로지 프리앰프의 성능만 갖고도 이 가격표가 절대 아깝지 않다.

마지막으로 헤드폰 부분.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헤드폰의 구동으로, 그 점에서 오로지 헤드폰 전용 앰프로만 제작된 제품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최고의 부품들이 투입되었고, 어떤 임피던스에도 대응하는 만큼, 이 부분에서 헤드 파이쪽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코 구색 맞춤으로 헤드폰 단자를 넣은 것이 아니다.

본 기의 스펙을 살펴보다가 제일 놀란 것은 본 기의 다이내믹 레인지. DAC를 통해 나오는 음이 무려 132dB를 갖고 있다. 통상의 CDP나 DAC가 105~115dB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놀라운 수치로, 다이내믹스가 증가할수록 표현력이 높아진다는 점엔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정도 수치면 몇 천만원짜리 전문 DAC가 부럽지 않다. 다시 한번 본 기의 포지션이 엑시무스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 높은 퀄리티에 박수를 보낸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엑시무스 라인업의 실체가 본 기를 통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그 반향이 대단하리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질의 프리앰프가 눈에 띄지 않는 요즘, 더 없이 시장에서 환영받을 제품이라 보인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제품이 적시에 출시되었다고 보며, 큰 박수로 환영한다. 특히 고음질 파일 유저들은 관심을 갖고 꼭 음을 들어봤으면 좋겠다.